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5주년 축하 메시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다섯 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준희 회장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협회가 출범한 지난 2002년,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한 신문은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인하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은 참여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참여로 정보의 흐름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숨김없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 기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보도로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착 관계를 끊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한편 개방형 기자실, 브리핑제와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갈등도 있고, 정부도 힘이 들지만 미래

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5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